



위원장 후보 장창열 - 전규석 두 개조 등록

11 21부터 24일까지 투표 ... 비정규 부위원장 단독, 일반 6명 경선

13기 임원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10월 30일 등록을 마치고 공식선거운동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31일 오전 입후보자 등록공고를 발표했다. 투표일은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다.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을 함께 선출하는 위원장 조에 두 조가 등록했다.

기호 1번 장창열 위원장 후보 조는 '완전투쟁 강한승리 미래장악 금속노조'라는 주 구호를 내걸었다. 현대자동차지부 소속 장창열 후보는 금속노조 6기 대외협력실장, 지부 교육위원, 지부 미래변화대응 TFT 팀장 등을 역임했다.

이상섭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포항지부 소속이다. 부지부장, 지부 교육위원장, 지부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엄상진 사무처장 후보는 한국지엠지부 소속이다. 지부 창원지회 감사, 지회 수석부지회장, 총연맹 경남본부 사무처장 등 활동을 했다.

기호 2번 전규석 위원장 후보 조는 '더 큰 단결! 정면돌파!'라는 주 구호를 내걸었다. 현대자동차지부 소속 전규석 후보는 금속노조 8기 위원장, 승용 1공장 사업부 대표, 지부 교육팀장 등을 역임했다.

김유철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기아자동차지부 소속이다. 판매지회 수석부지회장, 부지부장, 금속노조 12기 기획실장 등을 지냈다.

박경선 사무처장 후보는 서울지부 소속이다. 남부지역지회장, 지부장, 금속노조 12기 부위원장 등 활동을 했다.

비정규 할당 부위원장에 허원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장이 등록했다. 허원 후보는 '세상도, 노동도, 평등으로 하나!'라는 주 구호를 내세웠다. 금속노조 대의원, 민주노총 대의원 등 활동을 했다.

일반 부위원장에 여섯 명의 후보가 나섰다.

기호 1번 최순영 후보는 한국지엠지부 소속이다. '더 큰 단결! 정면돌파!'라는 주 구호를 내걸었다. 지부 교섭대표, 금속노조 11기 감사위원장, 금속노조 12기 교육실장 등을 역임했다.

기호 2번 서쌍용 후보는 현대자동차지부 소속이다. '노동자에게는 안전을, 자본에게는 좌절을 안겨주는 금속노조'라는 주 구호를 내걸었다.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사무국장, 금속노조 8·9기 부위원장, 지부 노동안전실장 등을 역임했다.

기호 3번 박상만 후보는 현대자동차지부 소속이다. '더 큰 단결! 정면돌파!'라는 주 구호를 내걸었다. 지부 조직강화부장, 정비위원회 부의장, 금속노조 12기 대외협력실장 등을 역임했다.

기호 4번 김병조 후보는 현대중공업지부 소속이다. '조선산업 위기 탈출! 희망의 배, 단결의 바다 조선업종노조연대와 함께하는 부위원장 후보'라는 주 구호를 내걸었다. 현중노조 선전실장, 금속노조 9기 중앙위원, 현중지부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기호 5번 손덕헌 후보는 현대자동차지부 소속이다. '더 큰 단결! 정면돌파!'라는 주 구호를 내걸었다. 현대자동차노조 노동안전실장, 부지부장, 금속노조 12기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기호 6번 차준녕 후보는 한국지엠지부 소속이다. '금속이 금속다움으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악질 자본에 맞서 가열찬 투쟁을 조직하자' 등 주 구호를 내걸었다. 지엠대우차 사무지부 수석부지회장,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장, 금속노조 대의원 등을 역임했다.

“ 노조법 개정 절호 기회 놓치지 말라”

서울지부 특수고용 조합원 국회 기자회견 ... “윤석열 거부 시 퇴진 맞볼 것”

특수고용 조합원들이 국회에 노조법 2·3조 개정 통과를 촉구하고 윤석열 거부권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는 11월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서울지부는 “가장 취약한 위치에서 가장 절실하게 싸우는 금속노조 소속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국회에 절호의 노조법 개정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라고 요구하려고 이 자리에 섰다”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지난 10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 회부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힘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낸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11월 중 국회 본회의에 관련 법안들이 상정된다.

김정원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장은 “사측을 교섭장 앉히는 데 18개월이 걸렸다. 정말 힘들게 싸워 첫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라면서 “올해 두 번째 임금교섭 중이지만 사측은 아무 힘이 없고, 결정은 모회사 LG전자가 한다”라고 비판했다.

김정원 지회장은 “재벌·대기업 원청은 자회사 뒤에서 이윤 창출을 위해 특수고용노동자를 싼값에 이용한다”라면서 “국회는 11월에 반드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원청과 직접 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 지회장은 “현대·기아차는 비정규직 판매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이지만 고용 관계가 없다며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규탄했다.

김선영 지회장은 “교섭장에 끌어내는 데 4년 걸린 대리점 사장들은 요구안을 한 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버틴다”라면서 “법과 제도는 노동조합을 통해 현실을 바꾸려는 희망을 품은 노동자들을 지켜주지 않았다”라고 개탄했다.

박준성 금속법률원 노무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보수언론이 찬양하는 미국연방노동관계 위원회가 최근 ▲노동자들과 고용관계에 있고 ▲노동자들의 필수 노동조건

중 하나 이상을 공유하거나 ▲공동 결정하는 경우 공동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의 새로운 시행령을 발표했다”라고 밝혔다.

박준성 노무사는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자가 책임지라는 뜻이고, 더는 꼼수를 통해 이윤만 취하고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법령이다”라면서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꼬집었다.

노조 서울지부는 “한국에 노동조합 만들기가 독립운동만큼 어렵고, 만들어도 제대로 교섭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있다”라면서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면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숨통이 조금 튼다. 기쁨의 단비 같은 희망이다”라고 간절히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노조와 서울지부는 윤석열이 대통령 직책을 이용해 노동자들의 염원인 개정 노조법을 거부한다면 퇴진을 맞볼 수 있을 거라고 경고했다.